

양식낙지 3천마리 첫 방류



‘낙지박사’로 통하는 강대용씨가 자신이 고안한 낙지 양식시설에서 부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명주기자 mjna@

신안에서 양식으로 부화된 어린 낙지 3천여마리가 처음으로 방류된다

‘부화 성공’ 강대용씨 신안 압해면 갯벌에 방류사업 성공뎀 100억원 추가소득 기대

16년간 낙지 양식을 연구해 온 장산면 오름리 강대용(57)씨는 12일 ‘압해면 일대 해안에 양식으로 부화한 3천여 마리의 어린 낙지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또 압해면 가란도와 지도읍 선도 등 갯벌 낙지 주산지 어장에도 어린 낙지를 방류한다.

강씨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낙지 부화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어린 낙지 방류사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낙지가 바다에 정착할 경우 양식을 통한 본격적인 양산으로 획기적인 어민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지난 1991년부터 낙지 양식에 나선 강씨는 술한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은박지로 둘러싼 스티로폼 원통을 고안해 낙지 부화에 성공했다.

강씨는 “인공 부화한 낙지가 서로 잡아 먹는 공식현상으로 폐사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공식현상이 나타나기 15일 이전에 인공 부화한 낙지를 바다에 방류해 생존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지난 2004년부터 배양장시설과 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지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낙지 종묘 생산이 양산 체제에 이른 만큼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세발낙지 주산지의 명성을 회복하겠다”며 “낙지 방류사업이 성공을 거둘 경우 100억원대의 추가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지역에서는 연간 400여의 낙지를 생산, 91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구례 산수유 수확 현장. 산수유 주산지인 구례군 산동면 일대에서 산수유 수확이 한창이다. 지난달 말부터 수확이 시작된 산수유는 술과 차, 한약 재료로 사용된다. 구례군에서는 전국 생산량의 60%인 연간 182t의 산수유를 생산하고 있다. /위적량기자 jrjw@

농협 전남본부 올 ‘햇빛’ 브랜드 상품 선정 영암 금정면 감 ‘대봉’ 고수익 기대

600여 농가 90억 소득

영암 금정면에서 생산되는 감 대봉이 농협 전남본부와 지역 회원농협을 통해 ‘햇빛’ 브랜드 상품으로 선정돼 고수익이 기대되고 있다.

영암 금정면 일대 600여 농가에서 연 4천200t을 생산, 90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대봉은 산지의 일교차가 커 당도가 높고 홍시가 돼도 물러지지 않는 등 고품질 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 마케팅이나 홍보 등이 취약해 농가소득 증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농협은 금정면 대봉 감이 올해부터 우수품질 농산물에만 부여하는 ‘햇빛’ 브랜드로 출하돼 15kg들이 상자 당 가격이 기존 4만5천~5만원 보다 15% 정도 비싼 가격에 거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는 우수 농산물 홍보를 위해 작년부터 ‘햇빛’ 브랜드를 개발, 광양 애호박을 햇빛 상품으로 선정했고 내년 2월에는 비금 시금치를 ‘햇빛’ 상품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영암=김한민기자 hnkim@

해남 호박고구마 인기 상한가

노란 속살 달콤한 맛 일품... 입소문으로 구입 문의 쇄도

해남에서 재배되는 호박고구마(일명 물 고구마)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물렁물렁한 노란 속살에 달콤한 맛이 일품인 해남 호박고구마의 명성이 입소문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구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올해 해남지역에서는 607ha에서 1만 3천여 t의 호박 고구마가 수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수요가 늘면서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재배 농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사진)

특히 지난해 웰빙 바람을 타고 흡소빙과 소빙물을 통한 판매가 급증했으며 올해도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롯데와 농수산 흡소빙 등 흡소빙을 통해 7kg에 3만 원선



에 팔려 나가고 있다. 해남산 호박고구마는 생육기인 7~9월에 고온 다습한 기후와 충분한 일조량으로 당분 함량이 높아 다른 지역의 고구마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다.

이처럼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일반 농가들도 수익성이 뛰어난 호박고구마 재배에 나서고 있어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광주~무안 고속도 광산 구간 터널명칭 논란 속

광산구의회 “어등산 터널이 타당”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과 선암동을 연결하는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터널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의회(의장 전양복)가 ‘어등산 터널’이 타당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산구의회는 12일 성명서에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는 지역발전의 상징하는 중요한 기간 시설물로 터널 명칭 역시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터널이 지역의 명산 어등산을 통과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어등산 터널’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양복 구의회 의장은 “일부에서 터널 인근 대학교 이름을 딴 명칭 선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터널 명칭에 대학 이름을 붙인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rtee@

“해남 쌀 사면 김배추 그냥 줍니다”

郡, 김장철 한달간 경품행사

해남쌀을 구입하면 김장배추를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해남군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남쌀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한다.

군은 추첨을 통해 160명을 선정, 2만원 상당의 해남화원농협 배추김치 1박스(5kg)를 택배로 배송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국 우수브랜드 평가에서 최우수 쌀로 선정된 해남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경품 행사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경품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주

소창에 ‘rice.haenam.go.kr’나 ‘팍팍햇살’ 또는 ‘해남쌀’을 입력하면 된다. 문의 (061-530-5385)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구례 군민 ‘숲 가꾸기’

구례군이 지난 9일 봉성산 일대에서 산림조합 직원과 공공근로자,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가꾸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나무 속아베기와 가지치기, 덩굴제거 작업을 벌였고 부산물도 얻은 팥감은 저소득층 가정에도 전달했다. 구례군은 매년 11월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새 얼굴

“전국 최고 복지·친절 농협 앞장”

고 홍 천 정남진농협조합장

“전국 최고의 복지 농협, 친절 농협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돼 4선에 성공한 고홍천 정남진농협조합장(55)은 “초일류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흥 유치면 출신인 고 조합장



은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 3개 농협이 통합 출범한 정남진농협을 1년여만에 13억4천만원의 흑자 조합으로 탈바꿈시켰다. 가족으로는 부인 위정단(53)씨와 1남2녀가 있다.

/장흥=김정욱기자 kykim@

100% 천연 재료 - 무첨가

“저도 까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겉고 뒤편지 다 소화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까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까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 부채표 까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까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이산화,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 임부님 |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 의사·약사의 상의하십시오. | 광고심의필 028-0200

11가지 생약성분 - 부채표 **까스활명수**큐